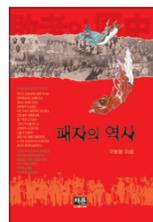


패자의 역사

구본창 지음 | 신국판 | 반양장 | 274면 | 12,000원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는 대부분 '승자는 선(善)이고, 패자는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였다. 이런 역사는 절대적인 진리였고, 그저 좋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한 도구였다.

그러나 역사를 반드시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나눌 수 있을까?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이라도 누구의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책은 기득권층에 의해 기록된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비주류, 즉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 '의자왕은 삼천 궁녀를 두지 않았다', '요승 신돈은 고려의 농민들과 노비들에게 성인(聖人)으로 추앙받았다', '개혁 군주 공민왕은 기득권의 정치 공작에 희생된 비운의 개혁가다'처럼 수많은 인물의 왜곡된 사실을 낱말이 파헤쳤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비판 없이 절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 책은 역사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노예로 전락한 조국으로 인해 모욕당한 조선인의 정조준 된 탄환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정복한 절대적 힘을 가진 이토 공작을 쓰러뜨렸다.

모든 일본인이 이토 공작의 이름을 알고 있듯이 모든 조선인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이토 공작의 널리 알려진 조선에서의 개혁이 이 나라를 사실상 일본의 노예국으로 만들었다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조국을 사랑한 한 조선인이 이토 공작을 향하여 행한 성공적인 총격은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정당한 경고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피를 통한 침략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기 힘들며, 또 그러한 방법으로 침략한 나라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르빈』 신문 (하얼빈에서 1909년 10월 27일 발행)

ВОЗМЕЗДИЕ НА ХАРБИНСКОМ ВОКЗАЛЕ

값 15,000원



채륜 CHAE RYUN

하얼빈 역의

ВОЗМЕЗДИЕ НА ХАРБИНСКОМ ВОКЗАЛЕ



박 보리스 지음 | 신운용 · 이병조 옮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안중근의 총성

이 총알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한국인의 영웅적인 투쟁을 싣고 원홍의 심장에 박히다

채륜 CHAE RYUN

지은이

박 보리스

전 이르쿠츠크 국립사범대학 교수

주요 연구와 관심분야

『러시아와 한국』, 모스크바, 1979

『제국러시아 시기의 한인들』, 이르쿠츠크, 1994 등 다수

-한라관계사, 한국독립운동사

옮긴이

신운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주요 연구와 관심분야

박사학위 논문

『안중근의 민족운동연구』

-『안중근의거의 사상적 배경』 등 다수

-한국독립운동사

이병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및 교양학부 강사

주요 연구와 관심분야

박사학위 논문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

-혁명 이전 러시아 정교회의 극동지역 한인 선교활동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인문제 연구

Cover Design_ Design호 (66605700@hanmail.net)